

국가NPU센터·AI연구소 등 전략사업 유치 돌입

인공지능서 찾는 광주 미래 먹거리

정부 추진 ‘AI 시티’ 조성사업도 최적지 내년 예산안 반영…시·정치권 막판 총력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투자를 본격화 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을 겨냥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달아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AI사업 선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코 앞에 두고 광주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연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30일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구) 등에 따르면 내년 정부 신규 사업 가운데 광주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NPU전용컴퓨팅센터 설립, 국가AI데이터센터 고도화사업, 국가AI연구소 설립, 광주AI실증도시 실현 등이다.

이들 사업들의 규모는 총 2조 3500억여 원에 달해 유치가 성공한다면 광주를 명실상부한 ‘국가AI시범도시’로 구축하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우선 총 사업규모가 1조 원에 달하는 국가NPU전용컴퓨팅센터 설립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00억원이 배정됐다. NPU는 AI ‘추론’ 단계에서 GPU 대비 10~100배 효율을 보이는 차세대 반도체다.

시는 AI 기술 실증과 기업·연구기관·산업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AI연구소 설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총 6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10억원이 반영됐다.

국가AI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은 총 사업이 1508억원 규모이며 내년에 217억원이 배정됐다.

광주에 들어선 국가AI데이터센터는 지난 2023년 본격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과제수행 건수가 1186개로 늘었고 2173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AI 특화 고성능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보안·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AI실증도시 실현사업은 총 6000억원 규모이며 내년 예산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가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전환(AI) 실증밸리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시티 조성’ 사업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국토교통부, 과기부, 기획재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처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지난 9월 발족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구)은 지도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인공지능전력단지 설치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서 미래차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실증지원센터는 실제 주행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검증할 수 있는 고성능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DIL(Driver in the Loop)’이다.

“AI 시티 사업은 한 도시가 완전히 AI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AI 인프라와 생태계가 탄탄하고 현재 대규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광주는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메가 샌드박스형 국가AI집적단지 조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인공지능(AI)센터’를 유치해 국제적인 AI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에서 언급했다. 경북 포항시도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기반조성 등 4대 핵심 분야에 걸쳐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자금이 함께 참여해 반도체·AI 등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내년은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정부예산안에 따라 이런 국정운영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운용 기조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미래먹거리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국 지자체들의 예타 면제 사업을 접수할 당시 광주는 ‘AI사업’을 선택했다. 당장 눈앞에 SOC(사회간접자본) 등 현안 프로젝트가 아니라 광주의 미래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라며 “그 선택이 이 대통령의 공약이 됐다. AI사업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계엄사태 1년’…이 대통령, 3일 특별담화

외신 기자회견도 열어 ‘K-민주주의’ 회복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 담화와 외신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간”이라며 “이에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

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 담화를 진행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총부리에 맞선 합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 수석은 “행사명은 ‘새

롭게 선 민주주의의 그 1년’”이라며 “국제 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전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하며 국내 기자 풀단에도 개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생중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연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알림

광남일보 신임 사장에 이승배 부사장



광남일보 신임 사장에 이승배(67·사진) 부사장이 선임됐다.

광남일보는 30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이승배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광주 출신의 이 신임 사장은 광주상고와 광주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무등일보 경영관리본부장, 광주매일신문 광고사업본부장을 거쳤다. 이 신임 사장의 임기는 1일부터 시작된다.



컨설팅·설치·인허가·리파워링·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